

時空과 陰陽五行

慶熙大學校 助教授 朴 贊 國

萬物의 生成變化가 時間과 空間을 떠나서는 存在할 수 없으므로 時空에 대한 正確한 理解는 매우 重要하다고 보겠다. 그런데 누구나 쉽게 時間과 空間을 알고 있는 것 같으나 그 正確한 本質은 看過하기 쉽다. 넓게 보아 이들도 하나의 事物이므로 生成變化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그저 같은 量의 時間이면 같고, 같은 量의 空間이면 같은 空間으로 認定하고 있다. 즉 같은 四角形이라면 더더욱 같은 空間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時間도 1時間이라면 그저 같은 時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實際 現狀世界, 즉 實世界에서는 같은 空間이나 時間은 存在하고 있지 않다. 단지 우리는 그 實質을 무시하고 단지 겉으로 들어난 量을 比較하고 測定하기 위하여 그저 같다고 約束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問題가 되는 것은 이런 假想의 約束이 實際인 것인양 教育되고 認識되는 課程에서 實質世界를 把握하는 우리의 陰陽五行을 理解하는데 있어 이러한 절대 時間과 空間을 가지고 하려 한다면 그 目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밤과 낮이 다르다는 것이나 春夏秋冬의 時間意味가 다르다는 것을 거의 깊이 생각하여 보지 않았을 것이며, 더구나 萬物의 各 個體에 있어서의 時間과 空間은 각기 다른 意味를 가지고 있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장 쉽게 例를 든다면, 우리가 밤을 짓는다면 불을 세게 땀 때와 불을 약하게 땀 때의 밤이 되는 時間의 量이 다르다. 즉 이는 불을 세게 땀 솔을 甲이라 하고 약하게 땀 솔을 乙이라 한다면, 甲에서의 밤을 짓는 時間과 乙에서의 밤을 짓는 時間의 意味는 전혀 다르다고 밖에 볼 수 없다. 時間은 같이 흘러 갔다 하지만 그 實際 意味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다고 밖에 볼 수 없다.

空間의 意味도 이와 같다. 즉 어떤 空間이 있다면 그 곳에 어떤 事物이 存在하며 어떤 時間이 付與되느냐에 따라 그 空間의 意味는 크게 달라진다. 통속적인 例로 지금 서울 번화가 명동이나 영동의 땅과 강원도 산골의 땅과는 엄청난 差異가 나고 있다. 지금 명동의 땅값은 空間的 時間的 條件이 어울려서 그렇게 엄청난 差異를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時間과 空間에 意味를 付與하는 것이 陰陽五行과 무슨 相關이 있단 말인가?

우리가 黃帝內經을 본다면 아마 四時와 四方이 陰陽의 變化를 說明하고 五行의 機能을 상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러한 方法이 매우 幼稚하다는 생각을 할수도 있고, 좀더 나아가면 그저 그렇게 하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좀더 나아가면 이러한 方法에 懷疑를 품게 되고 否定해 버리려 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여 보면 四時は 時間이고 四方은 空間을 意味하는 것인데 時空을 버리고 무엇으로 事物의 變化를 說明할 수 있단말인가?

四時야말로 自然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實際時間의 標準이며 四方이야말로 實際

공간을認識할 수 있는 基準이 아니겠는가?

모든 事物은 生老病死의 法則을 벗어날 수 없고 生成消滅을 격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時間은 반드시 이 生成消滅, 곧 生長收藏, 生成消滅과 連關시켜 觀察할 때 그 變化無雙한 時間의 참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공간도 이와 같이 時間을 連結시키면 生長收藏의 變化를 격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大英帝國의 沒落이나 新興 日本의 經濟力 등은 時間을 空間에 連結시킬 때 그 生成消滅을 느낄 수 있는 좋은 例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空間이라 하여 그대로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 事物과 時間의 變化와 함께 끊임 없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燦爛하게 變化하는 時空을 觀察할 수 있는 陰陽五行論의 時空觀을 우리 韓醫學에 어떻게 應用되고 있는가?

먼저 人體의 生理的인 面에서 본다면 氣는 晝夜의 바뀔에 따라 内外로 出入을 하고 있다. 즉 자고 깨어나면 內에 들어가 쉬고 있던 衛氣는 눈으로 나와 足太陽膀胱經을 따라 전체의 三陽經을 따라 循環하다가 잠이 들면 陰分으로 들어가 五臟을 循環한다. 즉 人體의 氣는 時間의 意味에 따라 그 位置는 물론 作用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즉 氣는 매일 아침에 다시 태어나 저녁에 죽는 課程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四時의 變化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氣는 봄에 태어나서 겨울이 되면 죽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기 爲한 잠시의 休息으로 보고 있지만 말이다.

空間적으로 마찬가지로. 즉 肝에서 태어난 氣는 心, 肺, 腎을 거쳐서 죽어가고 內部 五臟에서 태어난 氣는 筋骨脈皮를 지나면서 表皮에서 새로운 陰精을 合成하고는 죽어가는 것이다.

勿論 여기에서 肝에서 氣가 태어나고 腎에서 죽는다면, 五臟에서 태어나고 皮에서 죽는다는 말은 象徵的으로 한 말이므로 그대로 믿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腎이라 하여 어찌 氣의 生함이 없겠는가? 腎, 肝, 筋, 皮등은 또 각기 나름대로 五行의 變化를 겪고 있으므로 그 自體로 生成變化가 있음을 看過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지금 이 글에서 時空이 자꾸 혼동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것이다. 이는 왜냐하면 원래 이 世界는 時空이 分離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자꾸 억지로 分離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우리 韓醫學에서 이 時空을 完全히 結合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辨證思想에서 일 것이다. 즉 仲景이 六經辨證과 後世의 八綱辨證의 그 가장 좋은 例라 할 것이다. 즉 六經辨證의 表에서 裏로 病이 변해간다는 思想은 時空을 分離하여 생각한다면 空間的 面을 강조한 것이고, 三陽에서 三陰으로 病이 변하여 돌아간다는 것은 時間적인 面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勿論 지금 이말도 억지로 時空을 分離하려고 한 것이지만 말을 하자니 그렇다는 것이다. 八綱辨證에서는 表裏가 勿論 空間적인 面이고 虛實은 時間적인 것이고, 寒熱은 時空을 무시한 病精을 말하고 있으며, 陰陽은 이들을 모두 統合하여 病의 眞面目을 把握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여 다시말하면, 우리는 現象世界를 觀察함에 있어 時間이나 空間을 단순히 一定不變한 것으로 觀察하려는 機械的인 思考方式을 脫皮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時間의 觀察에 반드시 空間을 結合시키고 空間의 觀察에 時間을 結合시켜야 變化하는 實質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時空을 초월해 버린 陰陽五行論의 思考를 동

원 한다면 實體의 把握이 조금 쉬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흔히 病을 別個의 것으로 보려는 傾向이 짙은데 病도 역시 이 세계에 存在하는 하나의 事物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궁극에 가서는 健康과 疾病도 서로 區分되지 않는 더 높은 경지가 반드시 存在하리라 본다. 즉 病을 너무 나쁜 것으로만 보지 말라는 것이다. 人間의 生存에 필요한 것이기에 이 世上에 存在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西洋의 物理學者들은 現象世界를 “춤추는 물리”라는 말로 表現하고 또한 온 宇宙가 같이 呼吸하고 있다고 表現하고 있다. 勿論 이 세계는 각기 自體의 目的을 達成하고자 힘차게 움직이고 서로 끊임없이 影響을 주고 받고 있다.

그러나 그 法則을 把握하여 본다면 陰陽五行에 불과하고 認識하기 쉬운 變化의 要因을 나누어 본다면 時間과 空間으로 要約된다. 그러나 감히 다시 말한다면 時空을 結合하여 아니 초월하여 陰陽五行의 法則을 發見할 수도 있을 것이나 아직까지는 우매한 나로서는 들어 알지를 못하고 있다.